

정례브리핑

2020.8.5(수) 10:30, 여상기 대변인(통일부)

안녕하십니까? 8월 5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

먼저, 장관 동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장관은 오늘과 내일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.

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보고 내일은 오전 8시 30분에 차관 회의에 참석합니다.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.

여기까지 준비된 말씀을 드리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

[질문 · 답변]

※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(***)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.

<질문> 북한에서도 최근 홍수경보가 내려지는 등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북한의 피해상황이나 북한동향 정부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

<답변> 오늘 자 노동신문에서 큰물의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. 동해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 경보라든지, 대동강 등 여러 강에서 큰물주의보 등이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다만, 현재까지 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

<질문> 북한 혜산에서 가스폭발로 주택 수십 채가 불타고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당국에서 이게 확인이 되는지,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.

<답변> 관련 언론 보도에서 수명의 사상자가 있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. 관련 사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<질문> ***

<답변> 그 보도에 대해서 먼저 그러한 사실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. 다만 그에 대해서 먼저 사실 확인이 먼저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단계가 있을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

<질문> 혜산 폭발 관련해서 그러면 당국에서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

<답변> 현재 저희가 방송을 기준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어제 보도된 사상자 이외에 또 휘발유와 LPG와 관련된 사고라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고,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(※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'북한 방송을' → '방송을'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<질문> 혹시 황강댐 어제오늘 사이에 추가 방류한 정황 포착되신 것 있나요?

<답변> 어젯밤에 두 차례에 걸쳐서 수위가 올라간 것으로, 5m 이상 올라간 것으로 우리 측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큰물과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자연재해와 관련한 남북 간 협력은 정치·군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재해·재난 분야의 협력은 남북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이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.

그래서 이와 관련한 정보교환이라도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세계적으로 보면 인접한 외국 간에도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정보교환이라든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민족끼리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북측도 최소한 정보교환 등의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
<질문> 어제 통일부에서 밝혔던 세 차례의 방류로 파악하고 있다는 황강댐 방류 수치에 추가로 어젯밤에 두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,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?

<답변> 오늘 아침에 K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, 어젯밤 2시경과 오늘 새벽 6시 이후 필승교 수위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. 현재 오늘 아침 7시 현재 약 5m 정도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그 이전에는 3m였죠.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은 북한 측에서 사전에 우리 방류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해 준다면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큰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정보 상황 관련한 협조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

<질문> 관련해서 질문해서 하나 더 드릴게요. 만약에 정보 공유를 하려면 지금 북한이 어느 통로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해야 합니까?

<답변> 정보 공유를 하려고 하는, 하려고 하면 기술적인 방법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. 현재 남북 간에는 연락선이 두절돼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기술적인 방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.

<질문> 북한이 기존에 통보를 한 적이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. 그러면 그때는 어떤 경로로 통보를 했었던 건가요?

<답변> 북한이 통보해 온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도, 그때는 남북 간 연락선을 이용하지 않았을까, 라고 생각해 봅니다.

<질문> 지금 사실 북한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보도한 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, 지금 오늘하고 내일까지 큰... 어쨌든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평양 시내 같은 경우에 사실 2007년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변화했잖아요. 그런 변화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이번 폭우에도 피해가 예상되시는지, 정부당국이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.

<답변> 피해 예상은 기본적으로 얼마만한 양의 강수가 되느냐, 강수량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피해가 예측이 된다고 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. 다만, 북한지역에서도 홍수로 인한 피해가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

<질문> 방류 이렇게 알려주지 않은 게 지금까지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어떤 연장선으로 봐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.

<답변> 예, 북측이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비록 정치·군사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자연재해 분야는 비정치적인 분야이고 인도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 등의 기초적인 협력이라도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

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끝>